

분과발표_경제경영1-4

복음적 경영론의 정립과 기업의 적용

박정윤*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론

We never “get beyond the gospel” in our Christian life to something more “advanced”. The gospel is not the first “step” in a “stairway” of truths, rather, it is more like the “hub” in a “wheel” of truth. The gospel is not just the A-B-C’s but the A to Z of Christianity. The gospel is not just the minimum required doctrine necessary to enter the kingdom, but the way we make all progress in the kingdom (Keller, 2001, 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은 분명 복음이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 마음, 생각, 행동, 관계, 일,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음에 합당한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복음과 경영을 통합한 복음적 경영론을 정립하고, 이것을 기업조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여 복음적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I 장에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기존의 경영론 가운데 경영과정학파에 속하는 앨빈 브라운과 콘즈 등이 제시한 경영 모형틀을 간단히 서술한 후에 복음적 경영론의 내용과 경영원리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IV장에서는 복음적 경영론을 기업조직에 적용하여 기업의 목표와 기업의 중요한 정책인 투자정책, 자본조달정책, 그리고 배당정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II. 복음의 콘텐츠와 이에 대한 바른 이해

2.1 복음의 개념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고대 그리스 말이 중국의 한자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福音인데, NIV 성경에서는 Gospel 또는 Good News라고 번역되어(마가복음

1:1; 1:14-15; 8:35; 10:29; 16:15 등)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황제의 등극 소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언급할 때 주로 복수로 사용하였는데 (김세운, 2003, 23-24), 초대 교회 교인들이 이 단어 속에 새로운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추가하여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했다고 할 수 있다. 마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그의 가르침과 동일시하고 있다 (마가복음 8:35, 38; 10:29). 복음은 한 마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회복, 새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2.2 복음의 콘텐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복음만 알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증복음은 이와같은 포괄적인 복음의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오증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의 콘텐츠를 설명하고자 한다. 오증복음이란 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결국 신앙생활의 전과정을 설명해 주는 핵심 주제가 된다.

2.2.1 중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의 중요성과 방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한복음 3:3; 요한복음 3:7)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마음에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영혼이 거둬지는 중생을 체험하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이 중생의 복음이다. 이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2.2.2 성령충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한다(고린도전서 3:16).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재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매순간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령충만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도록 요청한 것은(누가복음 11:13)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사도행전 1:8).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요한복음 14:27)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한복

음 16:13).

2.2.3 신유(치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유의 복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사역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마가복음 16:18).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2.2.4 축복의 복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고통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신령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복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으로 매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고(창세기 1:28), 그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예레미야 29:11).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고린도후서 8:9), 예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도 이미 대속 받았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의 저주를 비롯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의 복음이다. 예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데 있다(갈라디아서 3:13-14).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저주에서 속량된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복을 구해야 하는 근거와 목표가 잘못된 것이 문제이지 복의 근원이시고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2.5 재림의 복음

재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러 이천년 전 이 땅에 오셨듯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마태복음 24:35)”는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마태복음 13:26; 24:30).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있는 것이다.

III. 복음적 경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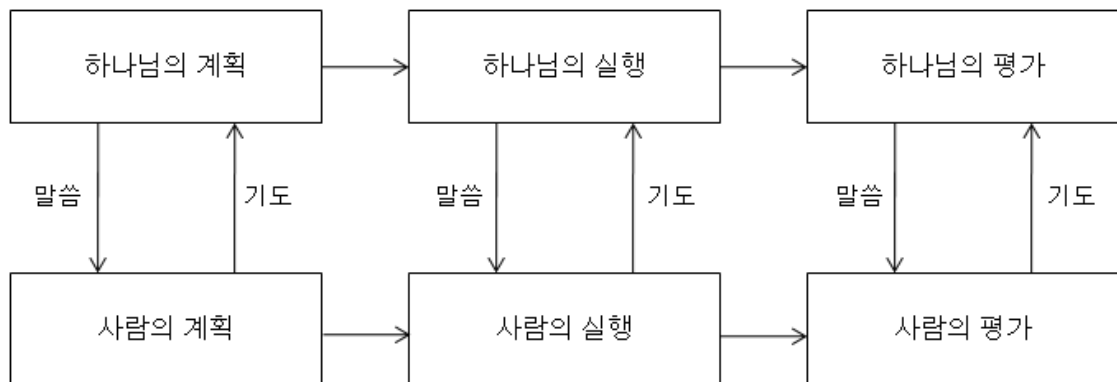
3.1 전통적 경영론

경영이란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겠다. 여기서 과정이란 경영자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브라운의 모형은 경영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의 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Brown, 1947), 쿤츠를 비롯한 몇 경영학자들은 경영자의 기능을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의 다섯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Koontz and Wehrich, 2005). 이 두 모형은 각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3.2 복음적 경영론

3.2.1 박정윤의 이중적 경영모형

박정윤은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전통적 경영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람의 경영모형과 하나님의 경영모형을 통합하여 이중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박정윤, 2004).



〈그림 1〉 이중적 경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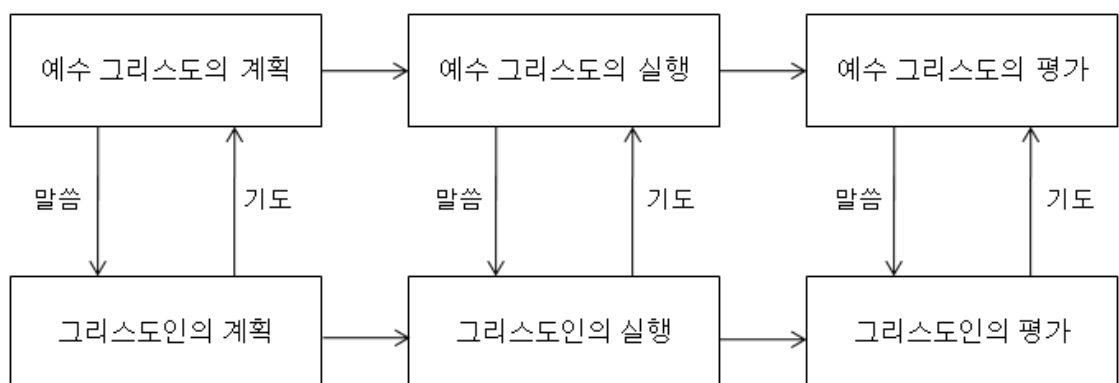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하지만 사람의 경영은 지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다.

또한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의 말씀처럼 사람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경영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평가에 끊임없이 비추어보며 계획, 실행,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 이중적 경영모형의 핵심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한복음 3:5)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의 상호교통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온전한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3.2.2 복음적 경영모형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엄밀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술한 이중적 경영모형보다 <그림 2>의 경영모형이 좀 더 정확한 복음적 경영모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2>에 의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의 세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계획, 실행, 평가의 세 과정으로 경영을 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경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경영을 할 때 경영목표가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림 2> 복음적 경영모형

3.2.3 복음적 경영의 모델

복음적 경영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경영이론을 말한다. 따라서 복음적 경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의 핵심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섬김이 유일한 규칙이다. 여기에는 인자까지도 예외가 될 수 없다(Liefeld, 1984, 720). 그는 섬기기 위해—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경영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42-44)

3.2.4 복음적 경영의 목표

복음적 경영의 첫째 과정은 계획인데,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이다. 복음적 경영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셨다(Tenney, 1981, 162). 이러한 목적은 특히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잘 나타나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다 (Mare, 1981, 253):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울은 다른 사람(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고린도전서 10:32),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마태복음 22:37-39)과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린도전서 10:33).

3.2.5 복음적 경영의 실행과 평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셨다. 그의 말씀에는 그의 계획이 나타나 있다. 예컨대, 예수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삼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가르쳐주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31). 그리고 마가에 의하면 이 사실을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마가복음 8:31; 9:31; 10:33-3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마가복음 15:37, 46, 16:6). 이에 대하여 바울은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3-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평가를 하실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평가하여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더 맡기심,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의 동참이라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또한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 빼앗김, 그리고 어두운 데로 내쫓김의 벌을 받게 된다.

3.2.6 복음적 경영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복음적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oikonomos)라 할 수 있고 신약의 많은 비유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오늘날의 경영자에 해당한다. 기업에서는 주주와 채권자가 자신의 소유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경영자에게 관리를 위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까지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경영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경영원리를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원리 1: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경영을 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적 경영의 시작이다. 또한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원리 2: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다(누가복음 16:13; 마태복음 6:24).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은 재물을 종으로 취급하게 된다. 반대로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가치는 재물의 가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하여 그 분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원리 3: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6:12).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의 소유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시편 24:1).

원리 4: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6:10). 재물을 버는 과정과 소비 과정에 정직해야 하고, 가치가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정직해야 한다.

원리 5: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선용해야 한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정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누가복음 16:9), 이는 재물이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누가복음 15장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야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연결하여 볼 때 이것은 구제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원리 6: 부자는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비유에서 부자 = 채권자, 빈자 = 채무자 라는 등식을 유추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부자가 가난한 동족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 비유 속의 청지기처럼 빚의 일부를 탕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원리 7: 청지기는 재물 외에도 복음, 재능,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 속에서 복음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문 속의 청지기는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즉 주인에게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고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지기는 그 일을 그만 둘 때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청지기로 있을 동안의 그 시간을 선용해야 할 것이다.

IV. 복음적 기업경영

복음적 경영론은 개인이나 가계에 뿐만 아니라 학교조직, 행정조직, 군대조직, 병원조직, 교회조직, 그리고 기업조직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조직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복음적 경영론을 정립하고 이를 기업에 적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목표와 기업에서 중요한 투자정책, 자본조달정책, 그리고 배당정책에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복음적 기업목표

기업목표는 전통적으로 이익극대화, 가치극대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는 시대적으로 이익극대화에서 가치극대화로,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으로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복음적 기업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이미 복음적 경영목표에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복음적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복음적 경영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7:4). 따라서 복음적으로 기업경영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회사 종업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파생적 목표라 할 수 있다. 복음적 경영의 파생적 목표로는 인적자원의 개발 이외에도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익창출도 파생적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익은 복음적 경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익창출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윤리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비스 마스터(Service

Master)사는 이익을 성장시키는 것을 수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CMDS (Computer Management and Development Service)사는 사업목적에 이익창출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다른 세 가지 목표(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사람들을 개발시킴,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함)를 달성하기 위해 큰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기독교경영연구원, 2004, 15-16).

4.2 투자정책

복음적 경영은 기업의 투자정책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투자정책은 기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수행할 사명 또는 비전을 선택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비전의 필요성은 잠언 29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다. KJV에 의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된다. 기업조직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비전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비전이 세워지면 이것에 기초하여 어떤 사업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사업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죄악시하는 담배, 술, 도박, 무기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좋은 기준은 존 웨슬리의 '돈의 사용'에 대한 설교이다 (도미니, 2007, 54-55). 그는 이웃을 해치게 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웃을 재산상으로 다치게 하지 말라. 둘째, 이웃을 육체적으로 다치게 하지 말라. 셋째, 이웃을 정신적으로 다치게 하지 말라.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 스크리닝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이웃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업이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SWOT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의 검토는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순현재가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기업경영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환경을 가꾸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경영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설계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전과정분석(life cycle assessment)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시장상황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점차 부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지기로서 경영자는 축복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3 자본조달정책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자본조달정책이다. 자

본조달정책의 핵심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다. 기업에서 말하는 타인자본을 성경에서는 보통 빚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빚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정리하여 이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복음적인 자본조달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재무경영(corporate finance)에서는 부채 또는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가 기업 가치에 정(+)의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의 영향을 주는지 아직도 그 답을 잘 몰라서 자본구조퍼즐(capital structure puzzle)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부채가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타인자본 또는 빚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빚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명기 28장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나타나는 저주의 현상으로 기술하고 있다(신명기 28:44).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대출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타나는 축복의 신호로 말하고 있다(신명기 28:12).

시편 37편 21절도 이 내용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와의 저주를 받아 가난하여 빌리게 되고 빌린 것을 갚을 수 없게 된다.

솔로몬은 가난하여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의 종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잠언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부자 : 빈자 = 채권자 : 채무자’ 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즉, 빚진 자는 부자가 아니라 빈자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어떤 부자는 채권자였고, 가난한 자는 부자로부터 밀과 기름과 같은 양식을 빌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솔로몬의 빈부에 대한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빈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일반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부채의 자본비용, 즉 이자가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량기업의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은 부채의 자본비용이 자기자본비용보다 낮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비용이 최대 49%나 된다. 따라서 성경의 지혜대로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본조달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4 배당정책

기업경영자는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배당정책이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배당이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배당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우파의 입장은 배당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주

주가 주식을 도중에 팔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현금흐름은 배당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받게 될 배당에 대한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각각 할인하여 얻은 현재가치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극좌파의 입장은 배당에 대한 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업은 배당을 될수록 적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을 최대한 사내에 유보하거나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셋째, 중도파의 입장은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단순히 배당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오늘날 기업재무경영이론은 주주의 부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주주를 자본제공자로 본다면 기업이 채권자에게 이자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고 원금을 만기에 상환해야 하듯이 주주에게는 배당을 적절한 규모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청지기로서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 기업경영을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공급처,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서도 경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기업경영자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이익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잘 조정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모든 경영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에서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복음의 콘텐츠를 다섯 가지로 이해하여 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복음적 경영 모형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 경영의 모델로 확인하였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적 경영목표와 경영원리를 발견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경영론을 기업의 투자정책, 자본조달정책, 그리고 배당정책에 적용할 경우 이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복음적 경영론을 정립하여 이를 기업경영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와 이미 이루어진 기독교경영에 대한 연구와의 관련성 그리고 복음적 경영을 병원조직, 학교조직, 또는 행정조직 등 다른 조직이나 국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기독교경영연구원 (2004). 기독교 경영 로드맵 11.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기원 (2009). (성경으로 배우는) 리더십과 축복 경영. 서울: 엘멘출판사.
- 김세운(2003),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란노아카데미.
- 김정권 (1998), 성경적 원리에서 본 전략경영, 企業經營研究, 2(1), 43-53.
- 김종춘 (2004). 1만 명 먹이는 하나님의 경영. 서울: 진흥.
- 김판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영산신학저널 통권13호, 2008. 6, 91-130
- 김홍전(2010),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약.
- 남봉헌 (1995), 말씀과 생활신앙 : 말씀의샘 / 지혜로운 인생경영 (야고보서 4 : 13), 활천, -(501), 30-35.
- 도미니 에이미(2007), 『사회책임투자』, 필맥.
- 로리 베스 존스 (2000), 최고경영자 예수, 敎會와 神學, 40(-), 180-183.
- 리차드 슈닝, 존 에비, 셸리 로엘즈(1995),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안동규, 한정화 옮김.
- 박성수 외 4인(2004), 『나는 정직한 자의 행동을 믿는다』, 규장.
- 박의범 (2001), 성경적 기업관과 기업경영 목표, 敎育교회, -(290), 45-49.
- 박종운 (2004), “이중적 경영모형: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경영”, 로고스경영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1-13.
- 박종운(2009),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기업경영』, 열린 시선.
- 박종운 (2011),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부자학』, 열린 시선.
- 박철 외(2012), 경영, 신앙에 길을 묻다, 맑은나무.
- 배종석 외(2006), 『기업이란 무엇인가』, 예영.
- 배종석, 박철, 황호찬, & 한정화 (2010). 기독교 경영 JusT ABC.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버켓, 레리(1995). 성경 속의 경영학. 서울: 엠마오.
- 스탠리 탬(2004), 『스탠리 탬의 놀라운 모험』, 세복, 류선옥 옮김.
- 스티븐 스캇(2006), 『솔로몬 부자학 31장』, 오윤성 옮김, 지식노마드.
- 이요섭 (2008),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 신학과 실천, 15(-), 211-236.
- 조인선 (2001). 신약성서의 기업경영원리.
- 존 스토트(2002), 『복음주의의 기본진리』, 김현희 옮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Banks, Robert and Paul Stevens(1997),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InterVarsity Press, Downer Grove, Illinois. Brown, Alvin, Organization of Industry, New York, Prentice Hall, Inc., 1947.
- Keller, Timothy (2001),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 Koontz and Weihrich (2005), Management: A Global Perspective, McGraw Hill. Ladd, G. E.,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 Liefeld, Walter (1981),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ume 8.
- Mare, W. Harold, (1981),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ume 10.
- Williams, Dan (1997), "Vision,"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InterVarsity Press, Downer Grove, Illinois, 1072-1075.